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1.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백성들로 하여금 아는 것도 없고[無知], 욕망도 없게 만드는 것[無欲]이 성인(聖人)의 정치이다.  
 을: 덕(德)으로 이끌고 예(禮)로 질서를 잡으면 백성들이 부끄러운 줄도 알고 또한 바르게 된다.

- ① 명분을 바로잡아야 함[正名]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엄격한 제도와 규범이 필요함을 경시하고 있다.
- ③ 무위(無爲)의 통치가 이상적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인(仁)을 통한 덕치(德治)의 실현을 간과하고 있다.
- ⑤ 통치자의 도덕적 수양이 우선되어야 함을 경시하고 있다.

2. 서양 고대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우리가 의미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근심이 없는 상태로, 이는 고통과 근심의 근원인 비자연적이고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제거함으로써 얻어진다.  
 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물에는 반드시 필연이 존재하며, 그것은 우주의 섭리[Logos]와 연계되어 있다. 인간 또한 그 우주의 일부분이다.

<보 기>

- ㄱ. 갑은 육체적인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강조한다.
- ㄴ. 을은 정념[Pathos]에서 벗어난 마음의 평정을 추구한다.
- ㄷ. 갑은 검소한 삶을, 을은 이성에 따르는 삶을 지향한다.
- ㄹ. 갑, 을은 사회적 덕을 실천하는 공적인 삶을 지향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가)의 스승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스승이 제자에게 중도(中道)에 대해 말하였다. “그대가 출가(出家)하기 전에 가야금을 잘 탔다고 들었네. 가야금을 탈 적에 줄이 너무 팽팽하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고, 줄이 헐렁하게 늘어져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지. 수행하는 이치도 이와 같아서 알맞은 마음과 몸가짐을 해야 한다네.”  
 (나) ㉠ 그러면 눈이 뜨이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 ① 시비선악을 명확하게 구별하라.
- ② 쾌락과 고행의 양 극단을 피하라.
- ③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자아를 확립하라.
- ④ 이상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음을 자각하라.
- ⑤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분명하게 구분하라.

4. 그림은 두 학생의 토론 장면이다. 갑, 을이 지지하는 입장으로 옳은 것은?

주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 ① 갑: 도덕적 행위의 근거는 의무 의식이다.
- ② 갑: 행복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도덕적이다.
- ③ 갑: 행위의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 ④ 을: 선의지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이다.
- ⑤ 을: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의 형식이어야 한다.

5. 서양 근대 사상 (가), (나)의 입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가)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며, 관찰과 실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찾고자 하였다.  
 (나) 수학에서의 공리(公理)처럼 이미 확인된 자명한 진리로부터 논리적 추론을 통해 개개 사물의 이치나 다른 원리를 찾고자 하였다.

<보 기>

		진리 탐구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가?	
		예	아니요
개별 사례로부터 보편 원리를 도출하는가?	예	A	B
	아니요	C	D

- (가)                      (나)                      (가)                      (나)
- ① A                      C                      ② B                      C
- ③ B                      D                      ④ C                      D
- ⑤ D                      A

6. (가), (나) 사상의 공통된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이를 풍류(風流)라고 한다. 이는 삼교(三敎)를 포함하고 많은 백성들과 접하여 교화한다.  
 (나) 사람이 곧 하늘이다[人乃天]. 모든 인간은 남녀노소의 차이나 빈부귀천(貧富貴賤)에 관계없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하다.

- ① 조화로운 삶의 자세를 중시한다.
- ② 자연을 인간 변영의 수단으로 여긴다.
- ③ 유교적 신분 질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
- ④ 공동체의 결속보다 개인의 권리를 중시한다.
- ⑤ 현세적 삶보다 내세의 영원한 삶을 중시한다.

7. (나) 사상이 보완하고자 했던 (가) 사상의 한계점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도덕적 행위의 정당한 근거를 유용성으로 보고 유용성의 원리를 개별적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나) 유용성의 원리를 행위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전제하고 있는 규칙에 적용하여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을 선정한 다음, 이 규칙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 <보 기> —

ㄱ. 개별적 행위에 대한 유용성 계산이 어렵다.  
 ㄴ. 도덕의 목적과 행복의 극대화를 별개로 본다.  
 ㄷ.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쾌락을 고려하지 않는다.  
 ㄹ. 도덕적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선(禪)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敎)는 부처의 말씀이다. 깨침과 닦음은 분리될 수 없으며, 고요하고 자취도 없는 마음의 본체인 정(定)과 깊은 지성의 작용인 혜(慧)를 함께 닦아야 한다.

— <보 기> —

ㄱ. 진리가 마음 바깥에 있음을 강조한다.  
 ㄴ. 사회와 분리된 개인의 해탈을 중시한다.  
 ㄷ.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모색한다.  
 ㄹ. 돈오 후에도 습기(習氣)를 제거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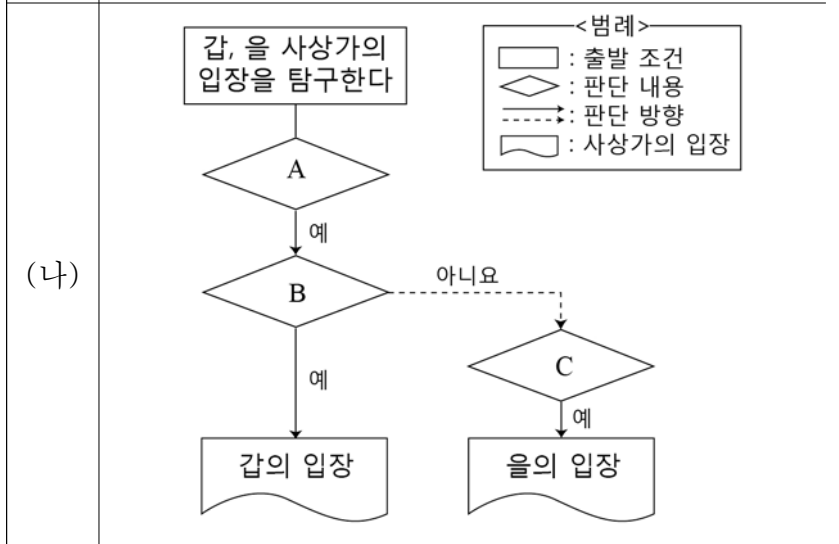
9.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인간은 실존을 목표로 살아갈 때,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 윤리 규범에 순응하는 단계를 거쳐 신에게 귀의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을: 인간은 '현존재'에 대한 물음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묻는 존재자이다.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본래적 모습을 회복한다.

- ① 갑은 종교적 실존을 통해 절망 극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② 갑은 참된 실존의 회복을 위해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 ③ 을은 불안과 염려를 '현존재'의 존재 모습으로 본다.
- ④ 을은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절대적 진리를 추구한다.
- ⑤ 갑, 을은 상대화할 수 없는 인간의 개별적인 삶을 중시한다.

10. (가)의 갑, 을 사상가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임금은 남에게 차마 모질게 하지 못하는 마음 [不忍人之心]을 바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을: 선(善)이란 인위적인 노력으로 된 것이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서로 싸우고 빼앗아 양보란 없을 것이다.



- ① A: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 욕망으로 보는가?
- ② A: 인간의 본성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는가?
- ③ B: 교육에 의해 인간이 사덕(四德)을 형성하게 되는가?
- ④ C: 예(禮)로써 욕망을 분별하여 규제해야 하는가?
- ⑤ C: 타고난 본성을 확충하기 위한 수양을 강조하는가?

11. 다음은 어느 동양 사상가를 상대로 실시한 가상 설문 조사이다. (가)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번호	질문	응답	
		예	아니요
(1)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지향해야 하는가?	√	
(2)	인의(仁義)를 확충하면 대도(大道)가 실현된다고 보는가?		√
(3)	(가)	√	
(4)	오감(五感)을 통해 얻은 지식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	

- ① 분별적 지혜로 시비선악을 명확히 해야 하는가?
- ② 준비천소를 구분하여 덕(德)을 실천해야 하는가?
- ③ 허심(虛心)을 통해 자연적 덕을 보존해야 하는가?
- ④ 엄격한 법과 형벌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가?
- 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인위적 규범을 중시해야 하는가?

12. 다음 사상가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모습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와 같다.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상호 계약을 맺어 국가를 수립하고, 군주에게 절대권을 부여하여 평화를 추구한다.

- ① 자연 상태에서도 도덕은 존재한다고 본다.
- ② 왕권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의회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통치 형태로 본다.
- ④ 계약은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⑤ 국가를 각자의 생존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13.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근대 윤리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적 원칙을 옳은 행위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강조했다면, 현대의 덕 윤리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좋은 성품이나 인격을 갖춘 사람'을 목표로 공동체의 덕목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의 덕 윤리는 ㉠는 한계가 있다.

<보 기>

㉠. 행위자가 속한 사회의 도덕적 전통을 경시할 수 있다  
 ㉡. 바람직한 성품과 인격이 무엇인지 합의하기가 어렵다  
 ㉢. 덕목들 중 더 나은 덕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  
 ㉣. 특정 공동체의 덕목이 비판적 사고 없이 주입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4.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정의는 덕이고 지혜이며, 부정의는 악덕이고 무지(無知)이다.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이를 행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을: 지나침과 모자람은 악덕의 특징이고, 중용은 덕의 특징이다. 악덕은 정념과 행위에서 모자라거나 지나친 것에 비해, 덕은 중간의 것을 발견하고 선택한다.

<보 기>

㉠. 이성을 통해 참된 지식을 찾을 수 있는가?  
 ㉡. 덕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 요소인가?  
 ㉢. 옳고 그름은 개인과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가?  
 ㉣. 도덕적 덕은 옳은 행위의 지속적 실천으로 형성되는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5. (가)의 갑, 을 사상가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인간과 우주 만물의 본성이 곧 하늘이 부여한 이치이다. 모든 사물에 다 이(理)가 있으나, 개별 사물들의 완성도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까닭은 기(氣)의 차이에 있다.  
 을: 오직 마음에서 우주 만물의 이치가 나온다. 마음을 떠나 별도의 사물에 내재된 이(理)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 ① A: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
- ② A: 앎은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앎의 완성이다.
- ③ B: 이론적 지식의 확충은 덕성 함양의 기초이다.
- ④ C: 마음을 바로 잡는 것[正]이 격물(格物)이다.
- ⑤ C: 점진적 수양을 통해 양지(良知)를 형성해야 한다.

16.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가상 대화이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우주의 본성과 인간의 이성이 동일하다고 본다.
- ② 을은 사회적 승인을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본다.
- ③ 을은 신을 자연법칙을 초월한 인격적 존재로 본다.
- ④ 병은 자연을 감각에 의해 파악되는 필연적 질서로 본다.
- ⑤ 을, 병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할 때 참된 자유를 얻는다고 본다.

17.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이며, 이성만으로는 동기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감정이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타인의 행복이나 불행을 함께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① 도덕성은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지는가?
- ② 도덕적 가치는 객관적으로 실재(實在)하는가?
- ③ 유용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은 도덕의 기준이 되는가?
- ④ 인과법칙은 반복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에 불과한가?
- ⑤ 선악을 시인(是認)과 부인(否認)의 감정으로 구분하는가?

18.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신(神)의 존재는 다섯 가지 방식으로 논증될 수 있고, 자연법은 신의 법칙들을 반영한 것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을: 인간은 교회의 중간자적 역할 없이 신과 만날 수 있다. 신자 누구나 신과 직접 대화할 수 있고,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 ① 갑은 신앙과 이성, 신학과 철학을 대립 관계로 본다.
- ② 을은 현세에서 노동이 갖는 가치를 부정적으로 본다.
- ③ 을은 성서를 통해 개인이 신과 직접 만날 수 있다고 본다.
- ④ 갑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한 반면에 을은 부정한다.
- ⑤ 갑, 을은 인간의 능력으로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19.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속 A의 행위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명칭은 그것을 행(行)한 뒤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람을 사랑한 뒤에 그것을 인(仁)이라고 하지,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는 인이라는 명칭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 례>

얼마 전, A는 지역의 여러 경로당에 200여 개의 방석을 기부했다. 그는 3년째 매년 어르신들을 위해 지팡이, 이불, 방석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진정한 이웃 사랑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 ① 선천적 도덕성인 인(仁)을 실천한 행위이다.
- ② 선행을 통해 사단(四端)을 형성한 행위이다.
- ③ 현실을 초월한 정신적 자유를 실현한 행위이다.
- ④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기호(嗜好)를 따른 행위이다.
- ⑤ 모든 욕구를 제거하고 천리(天理)를 보존한 행위이다.

20. 다음 조선 시대 사상가의 옳은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은 각각의 성이 아니다. 단지 기질(氣質)에 있는 그 이(理)만을 가리켜 말하면 본연지성이고, 이와 기질을 합하여 말하면 기질지성이다. 즉,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며,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겸한다.

<보 기>

ㄱ. 사단과 칠정은 마음의 본체인 성(性)이다.  
 ㄴ. 사단의 선함과 칠정의 선함은 서로 다른 것이다.  
 ㄷ. 이는 무형이므로 통하고, 기는 유형이므로 국한된다.  
 ㄹ. 사단과 칠정은 기(氣)가 발(發)하여 이(理)가 탄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